

여성들이여 일상에 이비를 걸까!!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7월 소식지

'1312'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뭔가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여성주의 캠프를 다녀와서♣

태리

'1312(일상시비)'에는 낯선 것이 참 많다. 그러나 그것들과 익숙해지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여성'이고 그대들이 '여성'이므로. 이를 '피를 나눈 자매(인용)'라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감대가 있으니깐.

캠프를 떠나기 하루 전, 법정관 123호에서는 '뺨'의 임권택 감독을 법정위에 세운 workshop '모의 재판'이 열렸다. 논리적으로 열변을 토한 검사와 짧은 혀의 장애에도 굴하지 않았던 변호사, 흥분하던 참가자들, 마지막 집행선언을 멋있게 해준 판사. 모두가 진지했고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토론 가운데에 '성대결의 흐름'으로 가던 부분이 있었다. 순간 내가 여성이고 여성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남성권력자인 임감독을 향해 감정적이고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가 반성하였다. 그날 임감독은 결국 거세형

에 처해졌으니....

다음날 여성 13인은 영덕의 영남대 심신수련장으로 캠프를 떠났다. 캠프 참가자 중에는 우리 학교의 학우들 뿐만 아니라 효성카톨릭 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학우들도 참가해 참 보기가 좋았다.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여성들만의 캠프'라는 것은 내게 참으로 새롭고 낯선 것이었다.

첫번째 감동은 가부장제의 배경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이름 버리기'였다. 여자 이름속에 그렇게도 많은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나의 이름은 전 여옥의 책에서 보았던 '태리(太里)'였는데,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안고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난 그 이름을 정말 좋아한다. 후에 친구들이 "'변태'리"라고 놀릴지라도.....(흑흑)

내겐 조별모임이 특별히 와 닿았다. 토론시간에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두들 아픈 사연이 참 많구나, 공감도 되고 내 이야기에 흥분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뭉쳐지는 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동화바꾸기' 시간에는 『인어공주』 이야기를 여성중심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는데, 연극으로 옮기니 더욱 재밌었다.

그렇게 서로의 속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다시 올 수 있을까... 그 때의 진한 서글픔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신현림의 시'이다.

한라산 집시

내일이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절망이 습성이 된 나와

여자 늙는 것이 추하다고 말하는 그대와
 편함과 어여쁨을 위해
 삼푸회발유 냄새나 질질 흘리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지상이 그윽한 뽕집이 되겠는가
 그대의 콧수염과 나와 네 머리카락을 죄 뜯어
 회개한 무로 만들고 싶구나
 미안하구나 심한 말을 껌 씹듯 쉽게 해서
 구두가 사람 끌고 다니기 힘들듯
 때때로 여자노릇 힘들어
 답답한 브래지어로 싸맨 젖가슴으로부터
 다달이 생리로부터
 지켜야 할 온갖 정조로부터 날아가고 싶구나
 외도하고 싶구나
 한 사내의 깊고 허망한 산꼭대기가 아니라
 지상의 긴 소변을 마치고
 인간이란 직장을 폐업해서 싱싱해진 맨발로
 노루와 놀다 쓰러지리라
 한라산을 누비고 누비다
 쓰러져 망초가 된 집시 노처녀

반어적이게도 신현림은 '망초'라 불렸지만 나는 이런 집시 노처녀가 너무도 부럽다.

우리가 모였던 그 곳, 우리가 모여야 할 곳이 바로 '한라산'이 아닐까..

[광 고 1]

12일부터 14일까지 안산 한양대에서
 “우울한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혁명”
 참여 자치 연대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1312가 <성>팀을 준비하여 참가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갑시다!!

▶ 활동 보고 ◀

우 7/4 방중 첫 모임을 양녀언니 집에서 <워킹& 토크>을 봤다. 집들이 겸..

우 7/11 1312방에서 여성주의 캠프와 희망학교에 대한 준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랬지만 슬아(지영), 양녀(순애), 떠리(우정), 랑네꼬(순영), 뽕뽕이(선경) 이렇게 적은 수가 준비에 참석을 하였다.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우 7/16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준비의 연장선이었다. 그런데 희망학교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행중 다행이랄까? ^^; 여성주의 캠프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다.

우 7/20 이날부터 30일까지는 거의 매일 모여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여성주의 캠프 워크샵으로 임권택 감독의 '창' 을 보고 모의재판하기로 했다. 그외 다수의 주제들을 놓고 시비쟁이들끼리의 열띤 토론으로 캠프 준비를 했다.

우 7/31 여성주의 캠프 워크샵. 남성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법정관에 시비쟁이들이 뒀다. 임권택 감독은 거세형을 선고받았다.

우 8/1-2 여성주의 캠프. 영덕 영대 수련장에서의 1박 2일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대인뿐만 아니라 효대인, 경대인 모두 함께 어울려 한바탕 화합의 시간을 갖었다.

우 8/5 “우울한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혁명”, 참여 자치 연대, 청년대회행사 준비를 위해 떠리, 양녀, 랑네가 시내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

[광 고 2]

21일에서 23일까지 서울대(혹은 연대)에서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동지들과의 연대를 위하여
1312시비쟁이들도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 우리가 '창' 을 씌운 이유 ●

작년 9월에 개봉된 임권택 감독의 <창>은 한국 최고의 감독이라 불리는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니 만큼 수 많은 관심 속에서 제작되었다. 하지만 막상 영화가 개봉된 후 모두들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임 감독이 건드린 주제는 바로 '매매춘' 이었다. 일견에서는 페미니즘 영화일 꺼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정작 이 영화를 본 여성 중에서는 어느 한명도 이 영화를 여성주의 영화라고 생각지 않았다.

97년 9월 30일자 씨네 21에서 임권택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본 결과 임감독은 매매춘을 활성화 시키는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서의 본능, 숫컷의 본능이야 자연스러운 거지, 어쩔거요?' 라는 대답을 했다. 이것은 명백히 매매춘 문제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각이 철저히 사회 필요악이라는 관점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매매춘 제도가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너무나 쉽게 강간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매매춘 여성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임감독의 견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행 세계 톱 1위를 달리고 있다. 해마다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매매춘 역시 너무나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한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학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성욕보다는 권력욕의 만족을 위해서 흔히

사창가를 찾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감독이 매매춘을 필요악(숫컷의 본능에 의해)이라고 규정한채 매춘부들의 고통을 담은 영화를 제작한 것은 모순이다.

임감독은 70-90년대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매매춘 여성들의 성윤리 의식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러나 과연 사는 남자의 성윤리는 제외시키고 단지 파는 여자들의 성윤리만 운운하는 것은 매매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제도나 현 사회의 성문화를 제외한 채, 또한 더더욱 매춘부들의 피를 빨아먹는 포주들과 강패조직 그리고 단속 또한 형식적으로 하는 경찰들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제외(혹은 약화)시키고 단순히 여자에게만 책임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근본원인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영화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사는 남자와 포주, 제도화 되버린 매춘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요즘 매매춘 여성들은 포주가 잡지 않아도 제발로 걸어들어온다. 수억을 벌어도 또 이것을 할 것들, 배미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 성윤리도 없는 년' 등 여전히 매매춘 여성들에게만 이 사회의 성윤리 타락의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임감독은 여성을 정결한 여자와 더러운 여자로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에 대해서는 그런 양분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성관계에 대한 태도나 횡수 등에 의해 남자를 깨끗한 남자와 더러운 남자로 바라볼까? 오히려 남자들은 성관계를 얼마나 여러 여자와 얼마나 자주 했는가를 자랑스러이 여기기까지 한다. 그것이 남자들에게엔 바로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기조차 한다. 같은 '사람' 으로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행동, 현상에 대해 그렇게도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까? 이를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매매춘에 관한 영화라면 물론 상식적으로 섹스신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

나 감독의 인터뷰 발언에서 나오듯이 불필요하게 긴 섹스신에 대한 이유가 단지 매춘 영화라면 당연히 섹스신이 있어야 하고 그걸 기대하고 오는 관객들을 배신하는 것은 제작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당연히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창>에서 매매춘 여성들의 삶을 거의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리얼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철저히 그것을 보여주기만 했다는데 있다. 우리가 또 다시 돈을 주고 극장에 들어가서 그녀들의 벗은 몸을 감상한다는 것이 된다. 그것이 돈을 주고 사창가에 가는 것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까? 임감독은 방울어 개인의 고통이 아닌 매춘부 집단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으나, 아무런 본질적 문제 접근 없이 보여주기만 하는 이 영화는 사창가 구경 이상의 아무런 것도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창>은 도저히 여성문제인 매매춘 문제를 고민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추악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그려내기 위해서 잠시 매매춘이라는 주제를 찾았을 뿐이며 다행히도 남성관객의 입맛까지 고려해 나신과 섹스신을 적절히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이것은 유지나씨의 '한국영화의 매매춘부에 대한 꺼지지 않는 강박 관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성의식에 한몫을 기여했다고 본다.

-우리와 매매춘 여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들은 지금 현재 매춘여성이고 우리는 예비창녀라는 점이다.-

[광 고 3]

총여학생회에서
98 여성문화제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총여학생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Tel:810-3739

●여성주의 캠프 결산공고●

-수입:400.000(총여지원금)/192.000(13명회비)
=592.000

-지출:350.000(차 대여비)/10.000(기사수고비)
600(기사음료수비)/2.000(통게이트비)
32.000(수련장비)/120.500(*부식비)
9.000(캠코더테잎)/1.000(창대여비)
20.000(PC천)/7.000(워크샵음료비)
10.000(뒤틀이 식비)/28.000(고기)
=590.100

592.000(총수입)-590.100(총지출)=1.900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사진(2통) 현상비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양녀의 영화읽기 ◎

- <물란>이 주는 기쁨들 -

오래간만에 월트 디즈니에서 대작을 내놓았다. 디즈니라는 거대 자본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번 영화는 달랐다. 중국의 민담 속에 전해 내려오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었다. 주인공 물란은 혼족의 침입으로 위협에 빠진 나라를 재치로 구한다는 여성영웅이야기다.

여성이 폄하되지 않고 상품화 되지 않은 영화를 본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인어공주>나 <라이온 킹>을 볼 때 디즈니의 철학은 매우 보수적임을 누구나 짐작했겠지만 이번 <물란>은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다. <지아이제인>을 본 사람들은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라고 했지만 진정한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들과 평등해지기 위해서 수십배의 노력을 더 하고 신체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란>도 전쟁중 여성영웅이야기라서 혹시

<지아이제인>처럼 변신하는 건 아닐까 염려했었다. 하지만 물란은 칼도 잘 다룰 줄 모르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연약했다. 단지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만으로 모든 것의 승부를 걸었다. 물론 중국이라는 여성에게 보수적인 사회라는 현실에서 물란 또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남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물란이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그 승리의 성과물은 다른 남자들이 다 뉘아채느라 또다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만 이때도 역시 물란의 현명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즐거웠던 것은 물란이라는 여성영웅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대다수의 전쟁영화나 재난영화 속의 여성의 모습은 똑같았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연약한 여성으로 인해 그 재난이 더 위기에 몰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남자주인공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인 것이다.

그것의 가장 극치는 <단테스피크>였다. 물론 여성감독이 만든 <피스메이커>처럼 비록 페미니즘 영화는 아닐지라도 주인공 남자가 단 한번도 키스하지 않는 새로움을 주는 영화도 있었고, <커리지 언더 파이어>처럼 전쟁 중 여성군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 꼬집어 주는 영화도 있었다.

<물란>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었다. 처음부터 남자주인공에게 물란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평범한 아가씨로 돌아와 남자 주인공의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해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안주하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의 위로를 얻을 것이 있다면 물란은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수줍어 하는 여성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면서도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이 좋았다.

또하나 내가 <물란>을 좋아하는 이유는 초반부에 집안의 강요에 못이겨 중매장이에게

이끌려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 동네 꼬마들이 여자아이의 인형을 빼앗아 장난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물란이 여자친구에게 그 인형을 돌려주는 장면이 난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이런류이 기쁨은 <여고괴담>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신사임당 사진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과 동일한 것이었다.

올 여름 최고의 영화는 단연 여성을 비하지 않고 여성의 억압들을 잘 꼬집어 준 <물란>과 <여고괴담>이라고 생각한다.

<물란>의 스토리는 어쩌면 너무나 빠른 건지 모른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나서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기쁨의 감정들은 다른 영화를 보고난 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여성영웅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여성이 폄하되지 않고 더 이상 주변부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기쁨,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스크린에서 만났다는 작은 기쁨 그것이었다.

◆ 보고 또 봐도 '반여성적 주제' ◆

MBC TV 일일극 「보고 또 보고」가 페미니즘 논쟁을 일으키면서 여성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여성들의 큰 관심사중 하나인 결혼을 소재로 삼고 있고 남자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중 은주(김지수)의 행동 때문이다. 드라마는 검사 기정(정보석)을 사이에 두고 부잣집딸인 여의사 승미(성현아)와 조건은 나쁘지만 당찬 성격의 간호사 은주(김지수)가 만들어내는 삼각관계로 사건을 끌어가고 있다.

기정의 어머니는 조건 좋은 승미지만, 은주는 여자다우면서도 당차게 기정을 사로잡는다. 은주는 기정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기정의 할머니를 자기편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적 행동도 마다 않는다. 은주는 기정어

머니의 노골적 냉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싸가지고 찾아가거나, 기정의 아버지에게 넥타이를 선물하는 등 결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같은 은주의 행동을 놓고 주부들은 「좋은 남자가 있으면 경쟁자가 있더라도 은주처럼 수단과 방법을 다해 꼭 잡아야 한다」 「행복은 자기 할 나름」이라는 동조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시청자들은 은주 행동뿐 아니라 드라마 자체에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펴고 있다. PC통신에는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벌이는 은주의 노력은 비굴하게까지 느껴진다」 「여자의 행복은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논리를 주입시키는 드라마」라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뜨고 있다. 한 여대생은 「검사와 결혼하려면 이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시댁식구에게는 무조건 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가부장적 논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반여성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것뿐 아니라, 오랜 친구였던 어머니들까지 딸들의 사랑경쟁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다. 또 기정할머니는 기정엄마에게 「소같은 며느리에게 질렸기 때문에 은주처럼 사근사근한 아이를 손주며느리로 맞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여성끼리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방송평론가들은 「이처럼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반여성적인 주제를 여성시청자들이 비판 없이 화제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이런 건 어때?

동화 바꾸기 - <인어공주> ◎

아주 오래전 육지공주와 바다공주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여성들은

항상 주변부로만 머무르다 보니 이 이야기도 어느 못뎀 남자작가가 이상하게 패러디해서 여성들끼리는 적으로 남자만 봉잡는 식으로 동화를 써서 전해내려 오더군.

사실 인어공주 이야기의 진실은 이렇단다.

육지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인어공주는 어느날 바닷가에서 육지를 구경하다가 너무나 지혜롭고 어여쁜 육지공주를 보게되었다. 그날부터 인어공주는 날마다 그 육지공주를 보러 바닷가에 놀러나왔고, 어느날 바다속 마녀에게 그녀를 인사시키기 위해 육지공주가 파티를 여는 배 근처까지 왔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육지공주 옆에 웬 사기꾼 같이 생긴 남자가 있지 뭐니까?

둘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엿들어 본 결과 이 남자는 육지 왕궁의 일등공신이었고, 엄청난 야심으로 공주와 결혼을 하여 이 나라를통째 삼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공주에게 접근해서 온갖 애교를 다 떨면서 공주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지공주도 이 남자의 계략은 눈치챘지만 집안어른의 권유로 막 흔들리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어찌 그냥 두고볼 수만 있었습니까?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결혼을 막아달라고 했고, 마녀는 바다의 신에게 부탁해서 폭풍을 불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폭풍은 몰아치고 육지공주는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생 까고 있다고 나중에 떨어져서는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물론 육지공주는 인어공주가 구해줬고, 둘은 오래오래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둘다 바다여왕과 육지여왕이 되었는데, 바다공주는 육지의 옷감을 육지여왕은 바다해산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나라살림도 잘하고 둘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잘 살았대요.